

보도시점 2025. 9. 12.(금) 11:00

배포

2025. 9. 11.(목)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추가 2.5만톤 공급(대여)

-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정부양곡 대여로 쌀 수급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9.15일(월)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정될 계획이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9월 19일(금)부터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17일까지 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양곡을 추가로 공급받은 업체는 '25년산 신곡을 '26.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물량은 '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추가 대여를 발표한 9.12일 당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RPC 협의회장과 함께 대여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올해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25년 수확기 쌀값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